

남부중앙교회(농)와 천안동산교회(도)의 교류 이야기

박 용 태(목사, 금산 남부중앙교회)

1.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

우리의 공식적인 만남과 교류는 2009년 4월 26일 자매결연식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람끼리, 교회끼리 만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두 교회의 목사는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만났다. 이 두 교회가 만나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준 분이 따로 있다. 그 당시 교회 일을 컨설팅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전문가가 있었는데(이상학 소장) 이분이 중간에서 연결해주었다.

당시 나의 목회현장 상황은 교회건축이 있었고, 건축이후 교회 형편이나 목사 개인적인 힘으로는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던 차였다. 생각 같아서는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는 교회가 있다면 힘을 얻어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도와달라고 먼저 요구할 수가 없었다. 마침 컨설팅 소장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이 소장은 시골에서 도시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개 알려주고 가셨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화되기엔 막막해보였다.

그 일 이후 서로 헤어져 시간을 보내던 차에, 어느 날 점심때 한 통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 동기 목사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나를 찾는 분이 있다는 것이었다. 나를 찾는다는 그분이 이 소장이었고 그 분은 동기 목사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왔다가 다시 우리 교회와 연결된 것이었다. 이미 4년 전에 다녀간 바 있는 이 소장은 우리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금산 어느 교회인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고, 교회 특징과(좌우 유리) 목사의 헤어 스타일(앞머리)만 조금 기억하는 게 전부였다고 한다. 그는 4년 전에 나는 이야기들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교회와 연결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했다.

나는 잘 알지 못하는 교회였다. 이 소장은 양쪽교회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터라 두 교회를 연결해주고 싶었다. 도시의 중형교회로 성장해서 이제는 농촌교회와 함께 선교활동을 하고 싶은 교회라고 했다. 중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에너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농촌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다. 4년 만에 들려오는 단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기억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렸다.

그 교회가 바로 천안동산교회였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전부는 아니었다. 그 속에 들어가 봐야 그 깊이를 알 수 있듯이 동산교회와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동산교회 당회원들이 여럿 있었는데 중직자들도 혹시 잘 아는 사이인가 물어보기도 했지만 전혀 몰랐다. 만나고 보니 우리는 대전노회 남쪽 끝, 동산교회는 대전서노회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서로를 알게 된 것은 만나면서부터였다. 우리가 동산교회를 만날 때 동산교회는 약 300-400명 출석하는 교회였다. 5년 만에 급성장했다고 들었다. 우리와 만난 후에 약 500여명의 교회로 성장했다고 한다. 우리 또한 동산교회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함께 동반성장하였다.

2. 교류의 과정

두 교회가 만나면서 먼저 조율하는 과정을 가졌다. 서로 모르는 상황에 서 만났으니 당연한 순서였다. 조율과정이 없었다면 만남이 계속 유지되 기 어려웠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목회자 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비전을 나누었다. 다행히 동산교회 목사님은 시골출신에 시골목회를 경험 한 선배였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것을 보고 놀랐다.



두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하는 단합의 모임

2단계에서는 강단교류를 하였다.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주일 낮 강단 교류를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동산의 목사님은 1년에 1회 동산교회 주일강단에 서도록 배려해 주었다. 어쩌면 가장 큰 배려였다. 다른 목회자에게 강단권을 내어주

려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목회적인 그릇을 키우는 좋은 기회였다.

3단계는 서로가 봉사활동을 하였다. 당시 큰 주제는 ‘형제교회’(아델포스)였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교회와 두 목사의 마인드라고 이 소장은 충고해주었다. 우리는 그러한 충고를 따라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다.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농촌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만 받는 소극적 의미의 교류를 하지 말고 남부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이것은 두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드릴 때 나타났다. 동산교회 성도들도 나름대로 많은 도전을 받는다고 했다. 동산교회 역시 가진 자원들이 대단했다. 우리에게 쏟아 붓는 사업비도 1년에 천만 원이 넘을 것이다. 그러한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농촌교회에 힘을 주고 함께 동반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3. 활동내용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가면서 또 조율과정을 거쳤다. 만남의 과정과 일의 진행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교회의 정황을 살피면서 사업들을 실천해 나갔다. 좀더 구체적인 활동과 내용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진행된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천안동산 목회자 수련회(MT)

천안동산교회는 연말(10월 경)이 되면 전 교역자들이 모여서 자기분야의 일 년 간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정리해서 보고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함께 세운다. 그때 담임목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할 때 각 분야별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게 된다. 이때 남부중앙교회 담임목사인 나도 초청을 받아 함께 목회사역을 나눈다. 우리 교회 사업이야 그다지 크진 않지만 동산교회 사업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시간이 된다. 내 자신이 동산교회 목회자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깨닫는 게 많다. 노하우가 생긴다. 직접 참여하는 목회는 아니어도 내게는 상당한 도전이 된다. 이러한 시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배려해주는 것 같다. 여기에서 일 년 동안의 목회활동 내용들이 정리된다. 그 후 두 교회 간 연결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눈 후 사업 실천에 들어간다.

2) 전반기 강단교류

강단교류는 내 영성을 다듬고 키우는 강력한 시간이 되었다. 나는 강단교류 할 때가 되면 전날에 미리 천안 에 올라가 준비하여 1부, 2부 설교를 하였다. 이때 동산교회 선교팀은 남부중앙교회로 내려와 예배를 집례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긴장하였지만 지금은 적응이 되었다. 강단교류는 가장 큰 배려라고 생각한다. 감사한 일이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강단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강단이 살아야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원동력이 된다. 강단교류는 나의 영성을 키우는 훈련장인 것 같아 감사했다.

3) 봉사활동사업



천안동산교회 교우들의
이·미용봉사활동

동산교회 선교팀이 내려와서 하는 여러 활동 중에서 이·미용봉사가 제일 인기가 높았다. 평소 잘 안보이던 사람들까지 몰려와서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올라갈 땐 지친 모습이었다. 다음날도 힘들다고 했다. 그래도 봉사의 즐거움을 맛보고 가기 때문에 너무 즐겁다고 했다. 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안스럽지만 감사하

는 마음을 가졌다.

4) 마을 수리봉사



마을 주민의 집 대문을 칠하고 있다

많은 봉사의 일들이 있는데 그 중 마을수리봉사가 있다. 각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수리해줌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처음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일명 '맥가이버봉사단'이 출동하는데 매년마다

봉사하다 보니 처음보다 실력도 상당히 늘었다. 봉사자들끼리 단합도 되는가 보다. 봉사자들은 사실 바쁜 사람들이다. 없는 시간을 내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올라간다. 하루에 마무리가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런 경우 다음에

내려올 때는 1순위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닌 데 감사하기만 하다.

5) 마을잔치

마을 어른들을 초청하여 마을잔치를 베풀어준다. 방송을 통해 초청한다. 이때는 교회가 아닌 마을회관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한다.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일거리를 준비해서 전도의 집착점으로 삼는다. 돌아갈 때 개인별로 작은 선물을 드린다. 예전엔 마을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욕하기보다는 칭찬을 한다. 문턱이 낮아진 것을 느낀다.

6) 청소년연합예배(수련회)

우리 교회 청소년은 주일 낮, 밤, 수요일 모든 공공예배에 90% 정도가 참석한다. 그래서인지 영성이 살아있다. 두 교회 청소년들이 연합예배를 드릴 때 뜨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우리도 동산교회에 무엇인가 줄 것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



두 교회 청소년들이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하고 있다

7) 동산체육대회(4-5월)

봄을 알리는 첫 사역이다. 우리도 올라가 참석하면서 즐거움을 나눈다. 마치 봄소풍 가듯이 동산교회가 준비한 체육관을 빌려 양 교회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체육대회이다. 이것은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큰 행사 중 첫 번째 행사이다. 행사가 끝나면 각종 시상품을 준비했다가 주고받는다. 우리는 우리 특산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시상품으로 내놓는데 홍삼박스, 홍삼젤리, 수삼, 깻잎 등 시골제품이라 좋아들 한다.

8) 동산축제

이것은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 열리는데, 이때는 남부중앙교회의 전 교인이 찬안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갖는 두 번째로 큰 행사이다. 축제 시 우리에게 작은 무대를 준비해주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여준다. 우리 상황에서 준비한 것이지만 동산의 식구들은 상당히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 또한 동산교회의 문화를 배우고 도전받는다. 이러한 연합행사들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서로에게 나눠 줄 것이 있어야 한다. 동산에서는 우리를 위해 식사비를 제공해 준다. 우리는 버스 타고 오고가는 시간에 휴게소에 들러 먹고 마시며 단합의 기회로 삼는다.

9) 농사체험활동

조그만 밭을 빌려서 고구마를 심어놓고 때가 되면 내려와서 동산교인들이 직접 캐어 가져가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본래 두 교회의 청소년 체험을 위해 준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남선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주며, 우리 청소년들이 준비하고 동산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된다.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다. 봄엔 감자로, 가을엔 고구마를 캐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한 번 참석한 청소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좋아한다고 한다.

4. 교인들의 반응과 변화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으나 우리의 것을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몫을 감당해주어 감사하다. 우리끼리만, 우리 교인만 바라보다가 이제 형제교회가 생겼다고 좋아한다. 작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여서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친숙해지는 것을 체험한다.

5. 성과, 문제점, 보완할 점

처음 2-3년은 바쁘게 보냈다. 과정 속에 미흡함이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실보다 득이 많은 활동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동산은 동산대로 얻은 것이 많다.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경험도 미숙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수동적이었다. 4-5년이 되면서 우리에게 맞는 봉사활동을 요구했다. 우리 실정에 맞아야 서로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었다. 자장면봉사가 그랬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대박이 났다. 힘은 들어도 보람이 컸다. 대문칠과 수리도 마찬가지이다. 농촌선교사업을 동산교회 식구들이 모두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강단을 통하여 설명해주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다.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행동으로 옮기는 법이다. 우리와 동산선교사업 담당자 간에 계속적인 만남과 소통이 필요함을 느꼈다.

6.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교류 활동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보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5년 계약을 했는데 5년이 넘어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 감사하다. 좀더 짜임새 있도록 준비된 사업을 나누려고 한다. 이 교류 활동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의 일이 되었으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하다. 동산교회는 우리와의 활동을 유지하면서 필리핀 팡팡가 선교사업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제 형제교회가 세 곳으로 늘어난 셈이다. 두 교회가 아닌 세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로 했다. 동산청소년들이 단기선교사로 참석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하자고 한다.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도 눈을 뜨게 해주고 싶다. 기대가 된다. 農